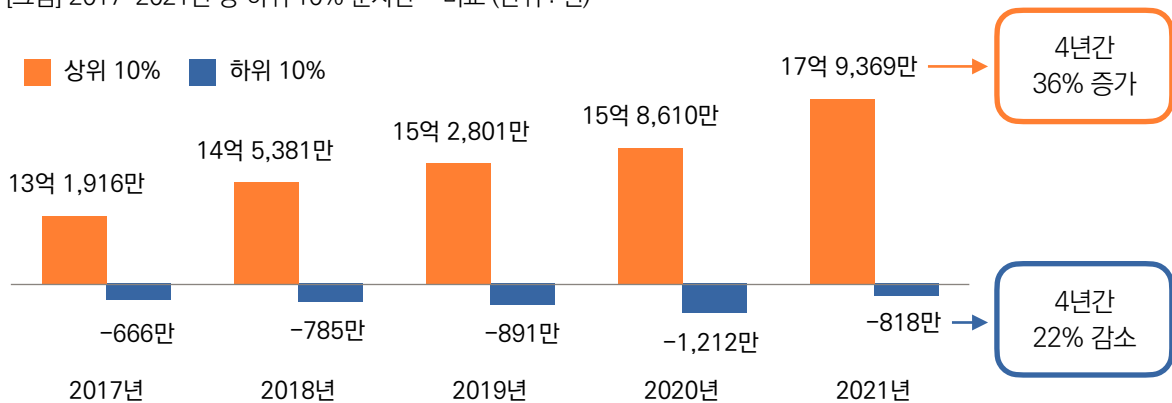




## 2021년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(자산-부채) 상위 10% 17억 9,369만 원, 하위 10% -818만원

- ▶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, 2021년 우리나라 가구 상위 10%의 순자산(자산-부채)은 17억 9,369만 원이었다.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17% 증가한 수치이다. 상위 10% 가구는 코로나 이후에도 재산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.
- ▶ 반면 하위 10%의 순자산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2021년 기준 -818만 원이었다. 상위 10%의 순자산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더 벌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.

[그림] 2017~2021년 상·하위 10% 순자산\*\* 비교 (단위 : 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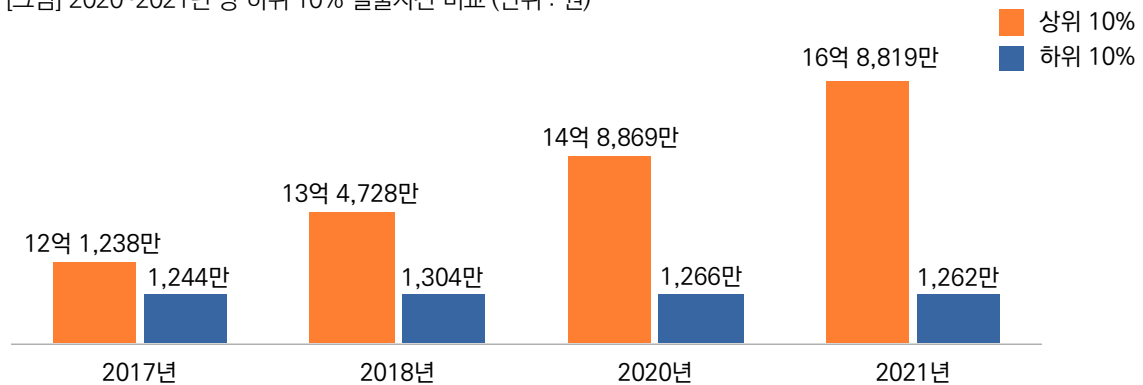


\*자료 출처 : 추경호 의원실/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 
\*\*순자산= 자산-부채

### ◎ 상위 10% 순자산 중 82%가 실물자산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!

- ▶ 상위 10%의 순자산 증가 원인은 실물자산(비금융자산)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서 찾을 수 있다. 상위 10%의 실물자산은 2017년 12억 1,238만 원에서 2021년 16억 9,919만 원으로 4년간 무려 3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.
- ▶ 반면 하위 10%는 실물자산이 2017년 1,244만 원, 2021년 1,262만 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.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리사회의 자산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.

[그림] 2020~2021년 상·하위 10% 실물자산 비교 (단위 : 원)



\*자료 출처 : 추경호 의원실/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

\*\*실물자산은 비금융자산을 말하며, 부동산,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. (<https://terms.naver.com/entry.naver?docId=6032953&cid=40942&categoryId=31810>)

\*\*\*2019년 자료는 발표하지 않음